

설 차례 비용 전통시장 25만4000원

대형유통업체 34만1000원... 전년 대비 각각 8.1%·0.9% 상승... 쌀·배추·무·계란 대형마트 저렴

설 명절을 3주 정도 앞둔 지난 10일을 기준으로 전통시장의 올해 설 차례상 구입비용이 25만4,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수산물)가 전국 19개 지역, 45개소의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설 차례상 관련 28개 성수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 25만4,000원, 대형유통업체 34만1,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8.1%, 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연이은 풍작으로 생산량이 충분한 쌀은 가격이 하락하고, 태풍(차바) 피해를 입은 배추·무 등 겨울 채소와 최근 AI 발생으로 산란계 마릿수가 감소된 계란 및 사육두수 감소한 쇠고기는 가격이 상승했다.

가격 상승률이 높은 품목 중 쇠고기를 제외한 배추·무·계란은 차례상의 점유비중(전통시장 1.8%, 대형유통 1.1%)이 낮아 가격상승으로 인한 가격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추·무·계란의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점유비중은 전통시장 1.8%(4474원), 대형유통 1.1%(3839원)이었다. 쇠고기는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에서 각각 44.4%, 44.6%의 비중을 차지했다.

구입처별로 살펴보면 전통시장에서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신년하례식. 지난 13일 전주 참예우명품프라자 연회장에서 송하진 도지사, 이학수 도의회 농경위원장, 김석준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회장 및 농업인단체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신년하례식 행사를 가졌다.

쇠고기, 배, 도라지, 부세 등을 구매하면 대형마트보다 5만925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쌀과 배추, 무, 계란은 대형마트가 전통시장보다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에서는 설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10대 품목을 중심으로 평시대비 공급물량을 1.4배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배추·무는 유통단계를 간소화

해 주요 소매점(전통시장, 대형마트) 위주로 직공급 및 합인판매를 추진하고, 계란은 가정소비가 늘어나는 기간에 농협계통 비축물량, 민간수입물량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가격이 높은 양배추, 당근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농가 재배기술 지도를 강화하여 원활한 공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aT 김동열 유통이사는 "설맞이 작거래 점터나 특관장 및 전통시장이 이용하면 알뜰하게 차례상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계의 알뜰소비를 돕기 위해 이달 18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추가적인 설 성수품 구입비용과 선물세트 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련 자료는 aT 농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www.kamis.or.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재용 기자

정기분 등록면허세 44억 부과

전북도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지난해에 비해 5.2%(2억1,900만1원)이 증가한 19만1,000건, 44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기존 단일 종으로 부과되던 임대사업자 면허가 보유 주택수에 따라 세분화되고 면허관련 각종 법률 제 개정 및 폐지에 따른 과세대상 현실화로 올해 50종의 면허 신설에 따라 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시군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인 전주시는 1만8,000원에서 6만7,500원, 기타 시는 7,500원에서 4만5,000원, 군지역의 경우 4,500원에서 2만7,000원의 세액이 차등 과세된다.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은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 통장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전용가상계좌,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와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한 모바일 지방세 납부도 가능하다. /인재용 기자

“세계경제 불확실성을 새로운 도약 기회로”

도내 경제관련 기관장 민생경제원탁회의... '도내 업체 우선 이용' 등 동참키로

도내 경제관련 기관장들이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해를 맞아 도내 44개 경제관련 기관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북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대책을 마련코자 민생경제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세계경제가 선진국 중심으로 경기회복세를 전망하고 있으나, 미국 트럼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국내 탄핵정국의 불안요인이 지속되는 만큼 전북 경제의 획기적인 성장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데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처해 전북 지역경제의 내수진작과 수출회복을 목표로 공공부문 지출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기관 운영경비 집행은 도내 업체를 우선적

으로 이용한다는 방안에 모든 기관이 동참키로 했다.

진홍 정무부지사는 “경제적인 불확실성과 4차 산업혁명의 변화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우리 전라북도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도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력을 보강하면서 산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은누리상품권을 통한 전통시장 이용확산과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우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홍상표 청장은 최근 조선·해운업 불황에 따른 지역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두 사용료 감면을 약속했다.

또한 전주세관 박용덕 세관장은 영세 중소기업의 수출 통관절차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설명하는 등 지역 수출회복과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합심하는 지리가 됐다.

특히 전북중소기업청 정원탁 청장의 ‘은누리상품권 이용 확산’과 전주중소노동자청 고광훈 청장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운영’, ‘고용·복지·시민금융 서비스’, 한국은행 전북본부 강성대 본부장의 ‘중소기업 설 특별자금 지원’ 등 서민들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한 각 기관들의 노력을 설명하고 협업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민생경제 원탁회의는 전북중소기업청, 한국은행 등 도내 11개 국가기관과, 4개 금융기관, 28개 공사·공단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다. /인재용 기자

온라인으로 전북 알린다

도 블로그 기자단 8기 출범... 20~60대 40명으로 구성

전북도의 온라인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는 '전라북도 블로그 기자단'이 지난 13일 전주영화호텔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40명으로 구성된 블로그 기자단은 앞으로 전북의 정책과 문화, 관광, 일상 등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을 취재해 전북도 블로그 '전북의 재발견'을 통해 네티즌들에게 알리게 된다.

전북도가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한 블로그 기자단은 20~60대까지의 직장인, 여행·사진 전문 블로거, 프리랜서, 대학생, 주부 등으로 구성됐으며 40명 모집에 181명이 지원해 4.5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특히 다른 지역 거주자도 선발돼 타 지역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새로운 관점의 기사가 작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재용 기자

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 본격 추진

혁신도시에 지하1층, 지상 10층 규모로 2020년 완공

도가 올해 전북연구개발특구의 조지정착을 위한 기술산업화 서비스와 산·학·연 교류·소통 비즈니스장인 '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테크비즈센터'는 총사업비 390억원을 투자해 전북혁신도시 금융타운 부지내 1만3,200㎡에 건축면적 1만9,300㎡로 지하1층, 지상 10층 규모로 2018년 착공해 2020년 완공할 계획이다.

센터내에는 기업과 연구소의 입주 시설, 전시·홍보실, 회의장 등 기술비즈니스 시설과 특구본부, 게스트하우스, 식당 등 지원시설이 들어선다.

도는 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 위해 지난 2015년 11월 전북연구원에 '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 타당성'을

의뢰해 지난해 2월 용역을 완료했다.

또한 지난해 3월 미래창조과학부 사업심의를 받았으며, 4월 기획재정부의 적격성심사와 5월 기획재정부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실시설계비 10억원(국비)을 확보했다.

도는 올해 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등 행정절차를 금년 3월까지 완료하고, 건축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센터 건립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테크비즈센터가 건립되면 전북 지역 연구역량 강화 및 기술산업화 활성화를 전북 산업구조 고도화가 추진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600억원, 취업유발효과 970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재용 기자

전주국도대체 '용진~우아' 반쪽 포장

10.2km 중 1공구 4.8km... 2공구는 발주도 안해

익산국도청은 전주국도대체우회도로 56.3km 마지막 구간인 용진~우아 1·2공구 중 1공구 4.8km 시공업체가 선정돼 2023년 9월 준공될 예정인 가운데 기재부에서 완주~순천고속도로와 국도17호 및 동부우회도로와 연계 경제성이 없으며 용진~우아 1·2공구 전체를 '반쪽 포장'할 것으로 알려져 대책이 시급하다.

그간 익산국도청은 지난 1998년부터 상관·구이·이서·용정·춘포, 용정·용진, 용진·우아1.2 등 6개 구간을 구분해 추진한 전주국도대체우회도로가 지난해 11월 전체 56.3km 중 용진·우아 1·2공구 10.2km를 제외한 5개 구간

이 마무리됐다.

또한 완주군 용진을 용흥리~전주시 덕진구 산정동까지 '용진-우아 1공구' 4.8km 시공업체가 지난해 10월 범양건설 등 3개 컨소시엄으로 선정돼 2023년 9월까지 공사하며 갈리·설계비 54억과 시설공사비 625억, 보상비 198억 등 총 877억이 투입된다.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에서 완산구 색장동까지 '용진-우아 2공구' 5.4km는 발주조차 않은데다 1·2공구 10.2km를 4차선으로 토지보상하나 포장은 2차선만 먼저 포장하고 나머지 2차선은 나중에 포장한다는 계획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사람을 찾습니다

▲박진현(550430-1*****) - 남
▲박종천(640102-1*****) - 남
▲박형진(671025-1*****) - 남

송정규(300310-2*****)씨가 그의 세 아들인 박진현, 박종천, 박형진씨를 애타게 찾습니다.

**주소: 전북도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32번지
**연락처: 010-3903-8619(송정규)

희망2017나눔캠페인 기부자명단

▲정읍시 상교동

- △이수천 50,000
- △구계마을노인회 100,000
- △과교청년회 200,000
- △연정양어장 200,000
- △내동 주민일동 100,000
- △박경희 50,000
- △고계택 50,000
- △김용천 50,000
- △광동타이어 100,000
- △성현멀티공업 100,000

**계 1,000,000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